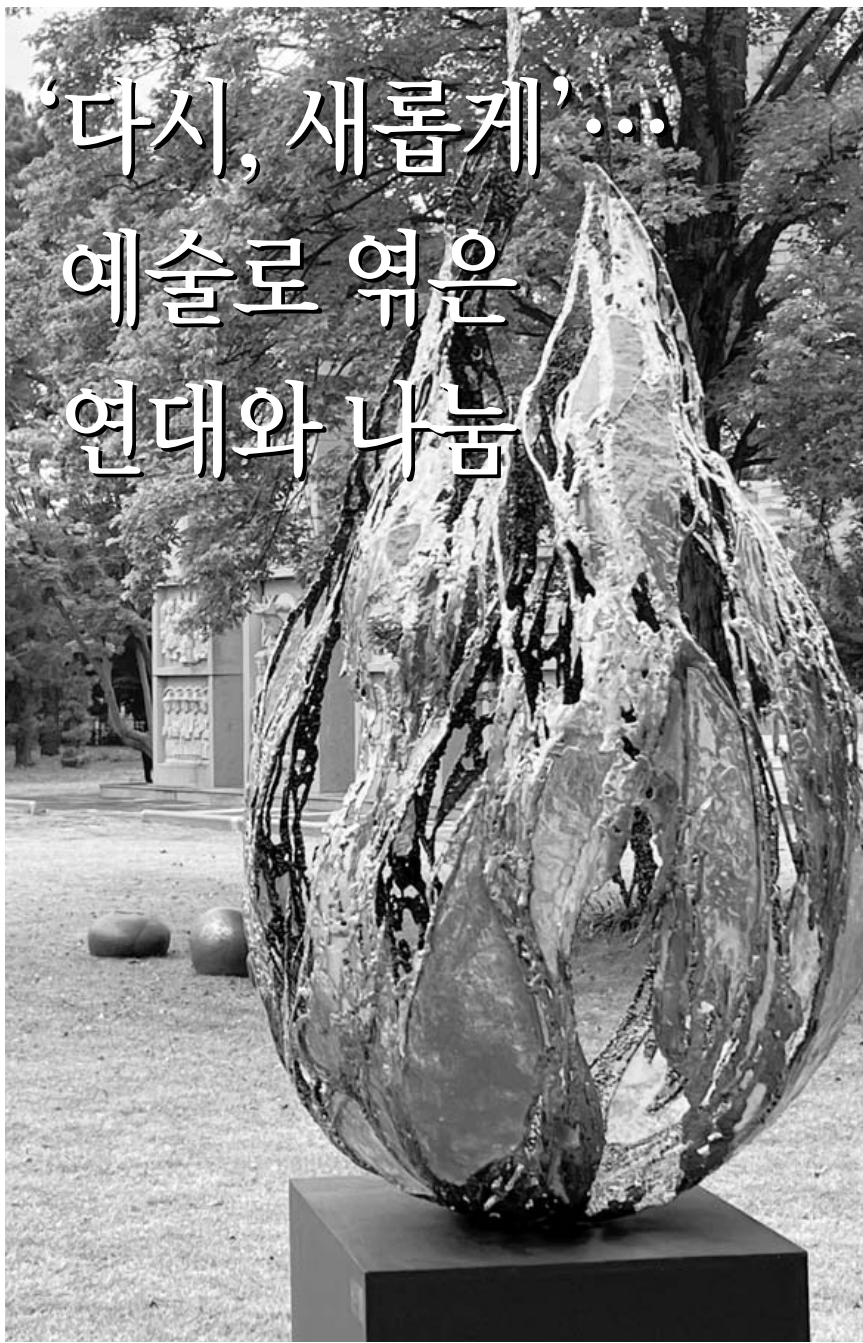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제8회 비움나눔페스티벌

근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내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올해도 '비움나눔페스티벌'이 열린다. 축제는 오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린다. 매년 시민이 오가는 축제이지만, 이 공간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더욱 특별하다. 1900년대 신학교로 지어진 건물에 현대 예술이 더해지며,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새롭게’...
예술로 엮은
연대와 나눔

국내외 27명 작가, 회화·조각 등 전시
공연·아나바다 장터 등 프로그램 다채

◀박기태작 '정화의 불꽃' ▶브레디관에 전시된 고 구광모 작가 작품과 전인식작 'Flow'



올해 주제는 'Re: 다시, 새롭게'. 실제 리모델링을 마친 전시장 그리고 야외 공간에서는 회화와 공예,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는 해외 작가 7명과 국내작가 20명이 참여한다.

야외 잔디밭 위로는 조각 15점이 설치됐다. 금속 용접 자국을 실처럼 이어 바느질하듯 표현한 박기태의 작품,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풀어낸 전백진의 조각, 폐자재를 재구성한 김행령의 정크아트까지 다양한 질감이 공간을 채운다.

실내 전시장인 브레디관은 회화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먼저 고 구광모 작가의 추상회화가 깊이를 더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11월1일에는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스테판이 추모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발달장애 작가들과 함께한 주홍의 '사이프로젝트'는 미술을 통해 소통과 치유의 의미를 전한다. 60세의

자신에게 바치는 정연두 작가의 '바느질 일기'에선 따스한 흔적과 손길이 느껴진다.

어두우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의 브레디관 지하 전시장과 어울리는 작품들도 잇따라 눈길을 사로잡는다.

무게감 있는 재료 속에서 흐르는 곡선이 돋보이는 전민식의 금속 조각 작품을 비롯해 종이실로 만든 뱀 예로 형상을 통해 성모에게 기쁨을 전하고자 한 한선주의 섬유 직조 작업도 만나볼 수 있다.

해외 작가들의 참여도 돋보인다. 이집트 작가 아흐메드는 인간의 고립을 주제로 내면의 사유를 시각화했고, 바쁜 이집트 특유의 문양과 기호를 목판화로 풀어냈다. 동판에 캘리그라피를 새기고 부식시켜 색을 입히는 작업을 선보이는 슬로바키아 오마르 작가 작품도 인상 깊다.

국적도, 종교도, 언어도 다르지만 이들은 오래된 신학교의 역사성과 예술가의 소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다. 이들은 작품 설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며 '연대'의 의미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축제에서는 비움과 나눔의 정신 또한 오롯이 드러난다.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시민이 물건을 사고팔며 기부에 참여하고, 작가들은 판매 수익의 일부를 나눔 기금으로 보낸다. 올해 모금된 성금은 페루 안데스 산골의 성 베드로·성 바오로 성당 아동 방과후교실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축제 기간 청소년예술제(25일), 동아리 페스티벌(26일-11월1일), '함께 노래하는 나눔 콘서트'(31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윤복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장은 "이번 비움나눔페스티벌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메시지처럼 희망을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축제"라며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예술로 이어가며, 시민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숨 그리고 숨’...

이혜신 개인전, 27일까지 관선재갤러리

삶의 순간들을 수채화의 투명한 물빛으로 담아온 이혜신 작가가 첫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관선재갤러리에서 '숨 그리고 숨'을 주제로 열린다.

오랜 세월 수채화를 놓지 않고 작업해온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지난 시간의 기록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숨길’

물빛으로 그린 인생 풍경

그동안 1~2년에 한 번씩 회원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며 기량을 쌓아온 그는 여고 동창들과 떠난 추억여행에서의 스케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작업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완성된 한 점 한 점은 인생의 회로에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남해 여행에서 포착한 봄의 정경을 비롯해 자작 나무 숲, 풍요로운 가을 과일 더미, 바닷가 풍경 그리고 주변의 응원으로 완성한 다육이 그림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인문으로 양림의 숲을 이룬다

‘14회 굿모닝 양림’...내일부터 11월2일까지

양림동의 역사·문화와 인물, 근대문화 유산의 가치가 어우러진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이 올해도 시민들과 만난다.

광주 남구가 주최하고 남구문화원, 굿모닝양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14회 굿모닝 양림’이 오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열린다.

‘인문으로 양림의 숲을 이룬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전시 8개, 인문학 콘서트 8차례, 공연 10개, 참여·체험 16개 등 총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6시30분 양림오거리 주무대에서 열린다. 박완규·김보경·우물안개구리·소프라노 안소현·퓨전플룻 서기비·바이올린 한예진 등이 출연하는 ‘정오의 희망곡’ 공개방송으로 막을 올린다.

특히 올해는 양림동의 랜드마크 ‘우일선 선교사 사택(사진)’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25일 진모영 영화감독의 인문학 콘서트, 25-28일 청년 예술가들의 버스킹, 26일 ‘양림역 사문화마을 사진 콘서트’ 등이 열릴 예정이다.

전시 마당에서는 양림동 화가들의 회화 작품전,



호국·개화·독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림 양림전’, 청년 작가 15인 작품전, ‘양림에서 만나는 미술관’, 소심당 조아라 및 오방 최홍중 선생의 삶을 다룬 전시 등이 이어진다.

인문학 콘서트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태우 함평군립미술관장, 황광우 작가, 허형만 시인, 김원익 그리스신화 연구소장, 박하선 사진가,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한규무 교수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한다.

공연 마당은 평권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공연, 밴드·뮤지션의 라이브 무대가 준비돼 있다. /최명진 기자

사유의 조각으로 엮은 문화 기록

정상연 칼럼집 출간...25일 북콘서트

광주시립합창단 정상연 운영실장이 일상과 현장에서 걸어 올린 사유의 조각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칼럼집 '생각의 파편' 출간을 기념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양림동 유진벨 비전센터(구 양림동 어비스)



에서아트 북 콘서트를 연다.

이번 책은 거창한 담론보다 일상의 틈에서 피어난 작은 생각들을 담았다. 문화예술 현장과 시대의 질문을 네 개의 장으로 나눠, 도시의 풍경 속에서 예술이 삶과 맞닿는 순간을 포착한다.

정상연 운영실장은 "문화와 예술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스며 있는 것"이라며 "이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심전심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